

'장애물 헐기'

주제

봄:

다른것들과 마찬가지로 오래 사는 장애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나이 드는 장애우들을 어떻게 교회가 돕고 함께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여름:

인터넷은 새로운 연결과 사역의 가능성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장애를 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능성을 주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온라인으로 이들을 위한 좋은 사역이 있나요? 2012, 5월 30일까지 이런 글들을 보내주세요.

가을:

본 개척교회 장애사무처의 30주년의 축하의 일환으로 장애우들로 인하여 교회가 변화된 이야기들을 실을 생각입니다. 우리 북미 개척교단과 미주개척교단 의 글들을 환영합니다. 2012년 8월 1일까지 이야기들을 보내주세요

통로를 갖출 때 복이 있습니다

데빗 벤 닌젠, 아이오와주 록 벨리시 믿음개척교회의 성도, 호프 헤븐 회사의 최고 디렉터

어릴적에 내 아버지는 남부 타코타주 식스 폴스시의 제일 개척교회의 소프트볼 선수였다. 다른 부모들처럼, 아버지는 교회

제직회나 주일학교 교사나 학생부 일이나 목사님과 가정 방문으로 봉사하셨다. 제일교회는 우리 가정 삶에 중심이었다. 매 주일 어머니는 최고의 옷을 입고 교회가도록 준비를 하셨다. 어린 정문의 계단을 올라야 했고 그리고 본당의 계단을 내려가야만 했다. 주일학교 교실이나 친교실까지도 지하로 내려가야만 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운동을 하지 않는다; 보행기로 라운딩 기지를 도는 것은 도전이다. 교회에서의 그의 일도 바뀌었다. 그 것처럼 봉사 못함을 아쉬워 하지만 제 부모에게 제일교회가 아직도 중심이다. 그들은 그곳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봉사함을 사랑한다.

제일교회는 25년 전에 옛 교회서 새 건물로 이사하였다. 어릴적 교회 같지 않게 이 새 건물은 더이상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돼 있지 않고 편안히 들어오게 돼있다. 어머니도 정문앞에 차를 세운다. 아버지도 본당을 걸어서 내려가지 않는다. 화장실도 가까이 있다; 주일학교 교실이나 친교실도 같은 층에 있다. 부모님은 이곳서 구조적인 장벽들로 예배드리지 않는다.

25년 전부터 이런 건물서 나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한다. 이런 특권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반길 것인지를 생각하며 묻곤한다. 우리 교회는 젊은 가정들을 섬기는 새로운 사역의 기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분들-나의 부모님이나 장모님 케이도 섬겨오고 있다.

장모님 케이는 얼마전 주님곁으로 가셨다. 죽기 전 얼마 동안 교회에 가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친구나 가족들은 그녀의 교회가 그녀에게 소중함을 잘 말해주었다. 장례식에 참석한 여러 성도님들은 그녀가 가르친 주일학교나 그녀 자녀들이 세례받고 함께 주님을 예배한 그곳의 그녀 삶을 감사하며 축복하였다.

교구

장애의 상황속에서 사시는 어른들에게 숙박시설은 많은것을 의미한다:

- 신체적 장벽들을 없이하며, 혹은 실제적인 주차 대행등
- 갇힌 공간'인 갈 수 없는 녹음예배실 등을 방문케 함
- 웰체어 탄 주일학교 교사인 사람에게 '고맙습니다!'라든지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있는 기회를 마련함

우린 신실하게 주님과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숙박들을 준비하며 봉사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존경한다.

교구 간호사는 몸과 영혼을 간호합니다

마크 스트븐슨, 북미 개혁신교회 장애우 사무처의 디렉터

“ 교구 간호사들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의 모습으로 살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미시간 홀랜드의 비치우드 교회서 (미주개혁신교단) 10년간 교구 간호사로 봉사하는 말즈 테일러는 말합니다. 교구 간호사들은 사람들이 약을 잘 먹는지를 확인하는 그 이상을 돕고 있습니다. 교구 간호사역을 위한 세계포럼에 의하면 교구 간호사들은 "전체적인 간호인 건강과 믿음의 통합하는 의도적인 영적 치료를 제공한다" 라고 합니다.

“ 많은 노인들은 역할 조정을 잘 해야합니다. 물론 그들은 장애가 있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함을 배우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라고 테일러씨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처럼 그들 삶에서 겪는 뇌졸중이나 치매의 결과들을 다른사람들이 알기를 두려워 합니다. 그들은 부담됨을 두려워하며 운전면허증 같은 것들을

없어지는 것들을 두려워 합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한계들을 대처함을 도울때에도, 교구 간호사들은 영적인 돌봄도 제공해야 합니다. 데일러씨는 "우린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법을 발견하도록, 특히 그 전에 해오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아직도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가주 립폰시 임마누엘 기독 개혁교회서 자원 교구 간호사로 봉사하는 쥬디 벤덜 플래츠는 자기 일의 기초가 다른 사람들과 신뢰 쌓기임을 발견하였습니다. "노인들은 교회의 사람 중에 자기들과 연관갓으며 돌보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건강 문제들이 늘어날수록 그들은 고립당할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밖으로 데러올 필요가 있습니다."

벤덜 플래츠 말하기를 노인들이 의사를 만나러 갈때 차편을 준비하든지 함께 가든지 합니다. "나는 함께 가는데 이유는 요즘 의사의 예약은 무척 빠릅니다. 노인들은 의사의 말을 잘 못 이해하든지 중요한 질문도 물어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대변할 건강훈련을 받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교구 간호사들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밴덜 플래츠씨는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당사자들을 교육시키고 그들과 가족분들에게 자료들을 제공하여 자신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교구 간호 일 중 하나로 임마누엘은 의료기 대여점으로 기증된 목발들 보행기들, 웰체어등을 갖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필요한대로 물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여점은 전도의 매체로도 활용되는데 회원들은 가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교구

기구들을 대어합니다.

교구 간호사들은 교회와 지역 사회를 함께 섬기는데 그러나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한 교구 간호사는 소정의 훈련을 받고서도 교회의 "아무곳에서도"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린 사람들의 필요하다는 연락들을 받고 혈압 진료를하는데 교회 지도자의 협조가 없습니다. 이 사역은 따로 하는게 아니라 교회의 다른 사역들과 통합이 필요합니다."

반대의 경우로, 벤덜 플래츠씨는 교회 카운실의 협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젊은 간호사들이 자원봉사자들로 참여하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 교구 간호의 미래는 아주 좋습니다."

치매 병동에서의 희생적인 봉사

컬트 웨쉬, 텍화 기독 개혁교회 성도, 텍화, 브리트쉬 콜럼비아, BC 북서 노회의 지역 변호인

근래 나는 치매를 돌보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하였다. 그곳에 간 것은 내겐 큰 행복이었다. 진실로 그것은 보증이나 연민이나 둘다 일 수 있다.

나는 근처 양로병원의 치매병동의 사람들을 만나러 매번 기대하면서 갑니다. 거진 내가 얘기하면 그들은 끄덕이거나 반갑다거나 모른체 합니다. 그러나 나는 "비비엔, 만나서 반가워요"하곤 합니다(혹 엘리스, 존, 유니스, 버드 혹 이반)

봉사하는 곳에서 우린 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약 90세

이상의 치매 여자 노인이 매일 반복적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74세의 정신병 여인을 돌보는 이야기입니다. 74세의 노인은 냉담하고 비협조적 이지만 90세 노인이 집으로 가며는, 그 젊은 노인 여성은 일을 한다거나 바쁘게 정돈등을 한답니다. 물론 그 나이든 여성은 그녀를 도운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것을 '모든 사람은 속했고 모든 사람은 봉사합니다'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변화인 새로운 출구

필 아싱크, 믿음 공동체 교회 목사(RCA), 에드몬드, 워싱턴

"우린 그것을 들여 놓지만 그러나 이세상서 누가 그것을 사용할찌?"

이 질문은 1990년 말 경에 제한된 출구를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놓을 때 있었던 믿음 공동체 교회(에드몬드, 워싱턴)의 많은 성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질문은 계속해서 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엘리베이터는 주일예배나 물론 성경공부 그룹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삼일은 사용합니다. 우린 이제 다른 그룹들이 우리 교회를 사용할때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몸이 다치거나 수술로 계단을 사용함이 불편하기에 휠체어를 사용합니다. 전에 어떤 사람들은 "누가 이것을 사용할까요?" 의아했는데 지금은 매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 모임의 몇사람들이 이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계단을 내려갈 때 시간이 많이 걸려 사람들을 붙잡아 두는 것처럼 생각됐는데 이젠 쉽게 엘리베이터를 탑니다"라고 말합니다. 무릎 수술 후 회복중에 있는 한 여성 성도는 계단에 올라타 내려가는 것보다 엘리베이터가 훨씬 쉽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다른 교회의 실례들을 통해 엘리베이터는 육체뿐 아니라 영적인 도움도 준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는 한 가정의 치매를 앓은 부모가 교회오시는 문제를 해결 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계속적으로 참여함이 모든 사람에게 영적으로나 정서적인 도움이 됨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의 한 성도는 척추부상의 엄격한 재활치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부상으로 걷지도 못하여 근 일년 이상 교회를 못나왔습니다. 근래 그녀는 보행기의 도움과 엘리베이터를 사용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교회는 그녀의 옴을 기뻐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업의 일부는 '98 기금모금 캠페인인 미주개혁교회 만오천불(\$9.8)의 지원금으로 가능해서 우리 교단에 감사하면서 12년 전부터 함께 자원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누구도 우리가 드린 헌금들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60년대에는 밑층에 입구가 없이 건물을 짓는데 이것들로 여러 질문들과 문제들로 우리들은 의견이 갈리곤 하였습니다. 몇 년후 출구를 만드는 것으로 할때 우리 진입로는 비록 비용은 적게 들지만 실용적이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밑층에 입구를 만들어 윗층과 아랫층과 연결하는 LULA 엘리베이터의 건은 비용이 듦을 알았습니다.

10여년 후인 지금 우리 새로운 질문인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의아해 합니다.

시력 손실에도 불구하고 연결돼 있음

많은 노인들은 시력 손실로 인해 좋아하는 책들 읽는 것과 성경공부 교재들을 사용함에 방해를 받아 소외감을 느낍니다. 미주 개혁교회와 북미주 개혁교회는 이런 분들이 서로 연결돼기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대체형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큰 글자 책자들

Bible studies in the Word Alive series from Faith Alive Christian Resources (FA)

RCA Lord' s Supper Pew Card (FA)

Psalter Hymnal (FA)

eBooks with variable font sizes (FA)

Inclusion Handbook and Breaking Barriers newsletter (from CRC and RCA Disability Concerns)

Today and Words of Hope devotionals

Pages on the RCA and CRC websites can be enlarged (using zoom) as well as all electronic publications (PDFs) such as the Words of Hope and Today devotionals, ministry resources, and much more

Publications on cassette tape

The Banner magazine of the CRC (FA)

Breaking Barriers newsletter of CRC and RCA Disability Concerns ministries

Today devotional

27

Podcasts

Today devotional

Programs from ReFrame Media: Under the Radar, Groundwork,
Walk the Way, Kids Corner, Spotlight

Apps and Kindle

Today devotional

‘아직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조앤 후버, 건강사역 디렉터, 제일 개혁교회, 오크 하버, 워싱턴

2005년에 우리 교회는 노인들을 돌보는 목적으로 최신의 건강 사역 정보들을 발간하였습니다-주제들은 다양하게 가을안전, 의료안전, 청력상실, 장기간병 등. 우리 예배를 안전한 예배장소나 이웃공동체 봉사하는 곳이 더 큰 필요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중 다른 것은, 사람들이 창문턱의 승격에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는 경우입니다; 넓은 나서 층의 아름다운 포석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매우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각 화장실안에 조그만 방을 만들어 휠체어 출구로 수용함은 바람직하지 않은 시도였습니다.

6년 후에, 워싱턴주 오크 하버시의 제일개혁교회는 1963년도 시설을 대대적으로 재 건축함으로 많은 문제들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 건물의 모든 출구는 재조정하거나 열어놓았기에 각 입구는 이제 치에서 내부로 보행기나 휠체어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다.
- 세 곳의 입구들이 이제 레벨 양식 디자인이 있으며 가장 큰 입구 문은 자동 열림의 누름 단추가 있다.
- 판석은 플렛으로 대체되었고 비 슬립 표면 타일은 보기 좋게 되었다.
- 나서안의 전등들은 상당히 좋아졌다.

- 큰 두개의 화장실에는 각기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드나 들 수 있도록 휠체어 접근 매점이 갖추어져 있다.

본당에도 여러 곳을 손을 봤습니다: 예배 인도하는 곳이나 성가대가 있는 플랫폼이나 성단소에 손잡이가 있는 램프나; 교회 좌석사이의 입구와 출구도움을 삼인치를 더 넓혔고; 또 본당에서 다섯 출구를 만들었다(밖으로 나가는 두개의 단일 문과 나사로 나가는 세개의 이중 문). 또 다른 것은, 우리 더 투명한 인쇄와 새로운 배경사진을 사용함으로 글자들이 두 스크린에 더 잘 읽을 수있게 반영하였다.

시설 보안들 외에, 우리 또 이사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들이나 집에서 할일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필요들을 알고 있다. 매주 선사인 방문자 그룹의 여성들은 집에서 나오 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방문하고 있다. FRC 수리공 그룹들은 집들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것을 고쳐주고 독을 세워주고 전구를 갈아껴주고 안전한 분위기로 만들어 준다. 지역 병원의 도움으로 가을 채비를 위한 교실을 준비했는데 많은분들이 호응하였다.

이젠 우리가 다 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필요한 곳들을 바뀌며 교인들과 그 가족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도울것 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90살의 나의 어머니는 그 나이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장애를 갖고 지내신다. 어머니는 말기의 치매를 갖고 있다. 보통 65세에서 75세의 삼분지 일 정도나 75세 이상의 반이 장애를 느끼는데, 곧 삶의 주요한 부분 하나나 몇 종류의 실제적인 제한들인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손상들입니다. 베이브 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서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20년은 극적으로 팽창될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교회에 못가신지가 몇년이 지났어도 교회가 지속적으로 어머니와 연락해움을 나는 감사하게 느낍니다. GEMS 그룹의 회원들이 그녀를 선물을 갖고 방문합니다. 교회 목사님인 잭 허레마은 꾸준히 방문하십니다. 몇달 전에는 잭 목사님께선 성만찬을 어머니와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교회 장로 마이크 오그털하우스씨도 그녀를 자주 보러갑니다. 나는 진심으로 교회공동체에 참여못하시는 저희 어머니를 돌보심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어머니님 같은 성도들을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성경은 '만남'(히브리서 10:21)를 두가지로 보여줍니다. 교회에서 올 수 있는 분들을 정기적으로 모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에게는 정기적으로 교회 식구들이 방문하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교회들이나 장로, 집사들이나 심지어 목사들까지 전보다도 덜 성도들을 방문하십니다. 이런 추세는 교회들이

교구
움직이지 못하시는 노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지 않으면 더 소외되기가 쉽습니다 (교구 간호의 3페이지 글을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야고보서 1:27).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부름에 응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마크 스트븐슨

보고에 보면 65세 이상되는 21% 사람들이 어느정도의 시력손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수치는 75세 이상되는 사람들에게겐 26%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책자 도움은 "Faith Alive 기독교 자료부"에 연락하세요(800-333-8300). 다른 질문들은 장애우 사무처에 문의 바랍니다(888-463-0272).

© 2012 북미주 개혁교회와 미주 개혁교회의 장애우 사무처 사역들. '장애물 헐기' 아래의 기관에서 연합으로 학기분으로 발행합니다. 2850 Kalamazoo Ave. SE, Grand Rapids, MI 49560-0800, and P.O. Box 5070, STN LCD 1, Burlington, ON L7R 3Y8; and by RCA Disability Concerns, 4500 60th St. SE, Grand Rapids, MI 49512-9670.

CRC 장애우 사무처 디렉터 마크 스트븐슨 목사 (888-463-0272; mstephenson@crcna.org)과 RCA 장애우 사무처 코디네이터 테리 디영 목사 (616-541-0855; tdeyoung@rca.org)

'장애물 헐기'는 함께 편집함.

위의 글들은 출처를 밝히시고 자유롭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